

공무원들, 농가 일손 보탠다

무주군, 25일까지 농번기 맞아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실시

무주군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현장으로 투입돼 본격적인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에 나섰다.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무주군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현장으로 투입돼 본격적인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과수 적화 및 적과 등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으로 농업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과수·윌에 분야는 특성상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사과, 복숭아 등 과수에 집중돼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인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당초 4월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자 발급 등 입국 일정 지연되면서 본격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가마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농가 시름을 덜어주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군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은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담당 읍·면 농가들을 찾아 열매숙기, 잎 따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봄철은 5월부터 6월까지, 가을철은 9월부터 11월까

지 진행된다.

18일 무풍면 울오마을 사과농장 적과작업 일손 돕기에 참여한 한 공무원들은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에 동참했다"며 "비록하지만 일손을 돕기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희망농촌 봉사활동'은 농가부담해소(중식)와 민원상담 및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또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공무원 봉사활동 자율참여제를 실시한다.

군은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마련했으며, 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이 상환실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이 총괄반장, 하부조직으로 상환반과 품목반, 인력중개반(농협무주군지부 및 지역농협참여)을 운영한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주군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만큼 농가에게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청장년 주거대책 마련"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공약 발표

황인홍(무소속) 무주군수 후보는 18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의 정주여건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은 하나된 문제가 아니다. 연쇄적인 문제로 이 모든 게 충족돼야만 무주를 떠나지 않고, 외지에서 무주로 향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고민이 충족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약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무주의 여건을 감안하고 농업분야 등에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설정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농업분야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과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으며, 주거여건과 관련해서도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청장년 귀농귀촌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덧붙여 교육문제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참여의 장을 교육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퇴직교사, 전문가 등이 동참하는 학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 시행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박영춘 진안군의원원 후보 '찾아오는 진안만들기 앞장'

6.1 지방선거 진안군의원원 무소속(진안군 나 선거구) 박영춘 후보는 "전국 최초로 아토피 치



유학교로 지정받은 초, 중학교가 있다"면서 "진안을 친환경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에서 피부에 좋은 여성초부터 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도 올려 찾아오는 진안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했다.

박영춘 후보는 평소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단체를 맡으면서 주민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하는 참봉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후원자이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로 활동하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장, 부귀면 지역사회협의체 회장, 진안군 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후보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독거어르신 가구 홈클리닝 사업 착수

무주군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홈클리닝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소 취약세대인 군내 독거어르신 가구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해 질병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홈클리닝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사업비 2,200여만 원(군비)을 확보하고 관내 독거어르신 15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청소와 방역소독을 펼치기로 했다. 소독은 월별 각 1회, 총 3회 실시한다.

이들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방역의 주요 대상인 바퀴벌레와 개미, 쥐 등의 일반 해충을 없애기 위한 방역 소독에 나선다.

이 사업으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장수군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

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17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수군은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홍보 캠페인, SNS 활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 정착에 힘쓰는 계획이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쳐 더욱더 신뢰받는 장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푸드협의회, 푸드플랜 정책 발굴 워크숍 개최

진안군은 18일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군의 푸드플랜 정책의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푸드협의회 분과별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별 민간위원과 기관단체 및 행정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진안군 푸드협의회는 먹거리 정책·실행·공동체 분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과별 회의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컨설팅 업체로부터 군의 먹거리 정책 현황 보고 청취 후 타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공유하고, 분과별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과별 주요 과제 내용은 정책 분과에서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방안, ▲공동체 운영 체계 확립,

실행 분과에서는 ▲지역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기공 활성화,

▲농산물 안전성 확보, ▲공공형 물류허브 구축, 공동체 분과에서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강화, ▲먹거리 시민 양성(식·농 교육), ▲생산·소비자간 쌍방향 소통강화(도·농 교류) 등을 다뤘다.

이날 한 참석자는 "진안군 푸드플랜을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농가,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수립해 나가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농산물이 많은 이들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원활한 푸드플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5월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7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계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인근 상가, 시장 등 밀집지역에서 이뤄졌다.

합동점검단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이성 혼속 목인·방조 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을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